

2020년 5월 24일 “회개의 좋은 열매”(시 15:1-5)

지난 주일에 본 **막 1:15** 에서 ‘회개하라’(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말씀에 관하여 실제로 무엇이 전환된 모습인지 시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시 15:1 은 ‘회개하여 피어나는 좋은 열매’에 관한 구약의 멋진 표현입니다. (시 24:3 참고) 구약에서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장소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모세는 여러 번 산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진지한 성도는 이것을 스스로 물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나는 과연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합당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2] 어떤 사람인가? (시 15, 16, 24 편 참고)

(1) **시 15:2**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 **24:4**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본문에서 깨끗한 삶이란 윤리적, 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말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든지 윤리적 문제와 법적 싸움에 종종 연루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말 논쟁에 휘말리고, 상대를 해치려고 프레임을 씌우고, 침소봉대 하여 불안과 공포심을 조성하는 사람들은 깨끗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수준을 벗어날 뿐 아니라 마음이 해맑고 청결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하여 일정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말합니다(**마 5:8** 참고). 예를 들어 **시 1:1** 에서 복 있는 사람-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은 청결하고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2) **24:4**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개역개정)

‘허탄함’은 왔다가 사라지는 것, 일시적으로 만족을 주는 듯하지만 곧 허무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은 잠시 만족을 주고 중독이 되게 만듭니다. 삶에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또한 삶에 필수적인 일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음식, 옷, 집, 컴퓨터 등. 이런 것에 마음을 팔리는가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됩니다. 필요에 의하여 적절한 선에서 취하는 것과 지나치게 탐닉하거나 경쟁적으로 소유하려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알고 따르는데 항상 방해가 된다면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도록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사랑에 기초하여 사랑의 도구로 활용하면 됩니다(직간접적으로).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진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임했지만 사랑의 실천 능력에 따라 그 열매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3) 회개의 열매로서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은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도구입니다.

15:3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이 말씀에 당당하다면, 내가 말하는 사람이 앞에 없을 때에도 있을 때처럼 말할 것입니다.

언어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선물로서 정확한 전달 능력이며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언어가 잘못 활용되면 상대를 섬세하게 비꼬고 비판하며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전락해 버립니다.

* **시 140:3**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혀(말)에 대한 잠언 말씀:

잠 10:20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잠 12:18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 15:4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좋은 말만 하고 싶지만 잘 안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4) 시 16:7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들로 채우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막상 말씀을 볼 때 주님이 주시는 생각에 모두 동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사 55:8).

그래서 말씀과 씨름이 필요합니다. 고민하고 부딪히고 묵상하는 긴 과정을 통해서 16:11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생명다운 생명의 삶)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묵상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시 1:2)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회개)함으로써 오늘 시편을 통해 살핀 그 열매들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누가 주님께 나아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 중 회개에 관한 주제를 묵상하며 적용해 봅시다. 나는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2. 내가 여전히 애쓰고 있는 회개의 제목들을 생각하며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어떤 성경적 길을 따라야 하는지 묵상해 보십시오.